

전 남

영산강 쓰레기 차단막 '무용지물'

집중호우·수문 개방엔 못걸러 무안·영암군 '예산 낭비' 불만

장마 등 집중호우시에 영산강 하류로 떠밀려 오는 쓰레기를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영산강 하류는 지난 10~11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 천치로 변해버렸다.

지난해 11월 영암군이 8000만원을 들여 쓰레기 차단막 200m를 설치했고, 지난 2월 무안군이 1억5000만원을 들여 그물망형 300m를 설치했으나 이번 집중호우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쓰레기 차단막이 강변 근처에만 설치돼 중앙으로 밀려드는 쓰레기에는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강변에 설치된 차단막에 걸려 있는 쓰레기도 수위 조절을 위해 영산강 배수갑문을 개방하고 물을 방류할 때는 다시 떠밀려가는 현상이 발생해 사실상 차단막이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가 지난 12일 영암군에서 설치한 차단막에 400t 가량의 쓰레기가 차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틀날 수거하라고 보니 하나도 없게 사라졌다는 것.

영암군 관계자는 "수문을 개방하고 물을 방류할 때 차단막에 걸려 있던 쓰레기들이 다시 떠내려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차단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안군 주민들은 "차단막이 조류가 약한 강변에 설치됐기 때문에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차단에 전혀 실효성이 없다"면서 "영산강 쓰레기 대란을 막고 수질오염 예방을 한다는 쓰레기 차단막이 무용지물로 전락하면서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과 무안군 관계자는 "영산강 중앙에 차단막을 설치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장명식) 직원들이 14일 영산강하류로 떠내려온 생활쓰레기와 초목류 수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려면 막대한 예산도 문제이지만 유속이 강해지면 차단막 지탱이 힘들 것 같아 강변에 설치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목포시는 영산강 하류로 밀려오는 쓰레기가 수문 개방시 목포 평화광장 면서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과 무안군 관계자는 "영산강 중앙에 차단막을 설치하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장명식) 직원 70여명은 14일 영산강하류구둑 일원에서 영산강하류로 떠내려 온 생활쓰레기 및 초목류 등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한 대대적인 정화활동을 실시, 12t을 수거했다. 앞으로 관계기관 및 민간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화순중 '법정 체험학습' 호응

2학년 392명 광주지법서 3개월간

화순중학교(교장 노재찬)는 학생들의 준비 정신 함양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3개월간 광주지방법원에서 '법정 체험학습'을 실시, 호응을 얻었다.

2학년생 392명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법정 체험학습은 실제 재판관을 방청하고 법복을 입고 실제 판사가 되어보기도 했다.

또 판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슈

비자나무 추출물 이용 항균포장재 개발 성공

광주여대·완도수목원 공동

비자나무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을 활용해 식품저장성이 뛰어난 항균 포장재가 개발됐다.

14일 전남도 산림자연연구소에 따르면 완도수목원과 광주여대 산학협력단은 공동연구로 최근 비자나무 잎과 열매에서 카테킨(Catechin)류의 천연물질을 추출, 식품의 미생물 성장과 부패를 억제하고 산도유지에 탁월한 생분해성 항균필름을 개발에 성공했다.

항균필름은 카테킨류의 비자나무 천연물질에 '농축 유정단백질'을 첨가하거나 알긴산과 젤라틴 등을 첨가하는 등 2가지 방법으로 개발됐다.

이 포장재는 수증기나 산소, 이산화탄소 및 향기성분의 이동에 대한 차단성을 높이고 과일이나 야채의 호흡률을 줄여 수분 손실을 줄임으로써 식품의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유통 중 미생물이나 해충의 증식과 번식에 의한 부패, 변질, 식중독을 예방하면서 내부 물질의 기능성 생리작용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

사용 후 폐기시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돼 친환경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

김중수 완도수목원장은 "항균필름 개발 2가지 방법에 대해 지난달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며 "첨단기술로 신물질 추출기술을 개선하고 상품화 연구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지점 www.85858949.co.kr

토지 매매

- ▶ **광산구 수완동 자연녹지 매매**
 - 6.571㎡(1,990평) 매대가 14억 물류창고, 교회, 요양원, 식당, 공장 직접, 유아원, 대형차 진입 가능
- ▶ **매월동 준공업지역**
- **골프연습장 인근, 대로변, 2780㎡(841평) 매도가 22억원**
- ▶ **광송 간 도로변 대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대가 6억 7천만원
 - 개월공사지가 6억, 대출 3억~3억5천만원 가능
 - 준주거지역, 전시장, 카센터, 사무적합
- ▶ **마복동 도로변 토지 매매**
 - 신촌동 1,114㎡(337평) 매대가 6억 7천만원
 - 매대가 7억 8천만원
- ▶ **벽진동 창고, 공장부지**
 - 벽진동 697㎡(211평) 일반주거지역, 대지, 매대가 2억4천만원
- ▶ **광산구 1종 일반주거지역 매매**
 - 산수동 1744㎡(528평) 매도가 1억9천만원
 - 바오동 645㎡(195평), 648㎡(196평)매도가 각각 1억 2천만원
- ▶ **나주 남평 토지 매매**
 - 풍림리, 계획관리지역, 2차선 도로변, 집종지 2951㎡(893평) 공장, 창고 등 용도 다양 매도가 2억9천만원
- ▶ **건물 매매**
 - 수익성 좋은 원룸 상가 매매
 - 생촌동 대지 278.5㎡(84.2평)/건평 662㎡(200평) 1층상 2층, 3층, 4층, 유휴, 루프, 매대가 7억8천만원 보증금 8천만원 월 700만원 공실없음
 - ▶ **상가 및 특목빌 건물 매매**
 - 생촌동 대지 367㎡(110평)/건평 1233㎡(373평)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2~3층, 목욕탕(직영) 상가 임대료 보증금 1억9천만원 월 340만원 대출 4억 8천만원 매대가 12억 5천만원
- ▶ **공장 창고 건물 매매**
 - 광산구 무산동 대지 2975㎡(900평) / 건평594.5㎡(180평) 비평장 인근, 대형차 진입 가능, 매대가 7억 8천만원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서평주여부군 자연녹지

- 서구 벽진동 서평구역 인근 6,561㎡(1,985평), 3.3㎡당 52만원. 자동차관련시설, 차고지, 기타

함평 순물 밭대기 전원주택(교환가능)

- 함평군 순물면 원전리 안락해수목장 인근 대지 및 전 14,370㎡ (4,347평) 연면적 178㎡(53평), 2층, 교환 가능함, 조망권 양호 앞에 서해바다가 펼쳐있음, 아파트와 교환가능 매대가 3억

생촌동 나대지

- 서구 생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1,845㎡(558평)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대가 3.3㎡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위치.

호남대(서봉)부근 자연녹지

-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일 3,458㎡(1,046평)3.3㎡당 11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안보, 조망양호

침단 보존병원앞 자연녹지

- 광산구 선월동 보존병원앞 9,722㎡(2,941평)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무등산 전원주택지

- 북구 화양동 대지438㎡(131평), 전.인1,994㎡(603평) 구 주택 2동, 매대가 1억8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건물구합(병원,요양원, 리모델링용)
광주 시내 전지역, 연면적1,000평이상.**

민선 5기 단제정에 듣는다

정기호 영광군수

"인구 10만명 자립도시 만들 터"

"인구감소와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끊고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정기호 영광군수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군민의 편에서 군정을 펼치겠다"며 "글로벌(Global) 영광, 대한민국 1등 영광"을 목표로 지역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민선 5기 소신을 밝혔다.

정 군수는 10만명 자립도시 건설을 위한 밑그림으로 ▲투자유치 총력 경주 ▲농어민 소득창출 ▲관광객 100만명 시대 준비 ▲교육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군



전문단체를 조성하며 백수 해안에 콘도와 리조트 유치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정 군수는 "인재육성 기금을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영어 경시대회와 해외 어학연수를 할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며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도 나타났다.

정 군수는 또 "영광대학교와 칠산대학교 등 국책사업의 조기완공과 산업 시설시설 재원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겠다"며 "문화예술회관과 실내수영장, 옛 군내극원 등을 완공하고, 옛 군내버스 터미널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해 영광의 문화적 품격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SOC 늘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전기차 산업의 메카' 적극 육성할 것

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민선 5기의 주요 7대 시책을 세우고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 군수는 대마 산업단지와 송림 농공단지 조기에 완성하고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기업체 100개를 유치해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 군수는 또 CT&T 전자자동차 생산공장을 유치해 영광을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육성할 복안도 갖고 있다. 특히 고용 효과가 큰 전자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투자유치기금 200여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어민 소득 창출을 위해서 유통회사를 중심으로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RPC 통합 운영 및 골바·보리산업 특구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백수해안과 4대 종교 관련 관광자원을 꾸준히 개발하고 ▲홍농 테마 식물원 ▲염산 화화도 바다 전망타워 ▲영광을 관광형 향토음식

돼지·오리도 '친환경 축산인증마크'

전남도 오늘부터 시행

전남도는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한우 도축검사증서의 '친환경축산 인증마크 표시제'를 15일부터 돼지와 오리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돼지와 오리도 한우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축산인증마크를 획득한 농가가 도축 출하시 인증서 사본을 가축과 함께 인계해야 한다.

또 도축장은 도축검사신청서에 친환경인증우임을 표시해 축산물품사관이나 자체사관에 대해 도축검사신청을 하면 친환경축산인증마크를 통해 해당 가축을 확인한 후 도축검사증서에 인증마크를 표기하게 된다.

전남도는 나주축산물공판장 등 도내 8개 도축장과 오리 도축장 4개소에 친환경축산인증 고무인을 이미 제작·공급했으며 친환경인증 마크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김영희
☎ 062-364-8700
H. P. 010-4608-3700

지역	소재지	면적/평	건평	최저가	비고
광산구	수완동	112/34	2억	194천	
	신촌동	148/45	237천	198천	
남구	신촌동	112/34	1억1천	82천	
	신촌동	112/34	1억1천	82천	
북구	신촌동	108/23	1억1천	72천	
	신촌동	108/23	1억1천	72천	
서구	신촌동	108/23	1억1천	72천	
	신촌동	108/23	1억1천	72천	

• 위치: 법원입찰장 건너편 • 권리분석-현장답사-입찰대행-낙찰(잔금부족시 최저금리 대출알선)-평도(이사)